민주 전대 투표 시작… 후보 3人 “내가 대세”

권리·일반당원·대의원 순차
송영길·김진표·이해찬
각계각층 지지선언 공개
막판 지지세 모으기 총력

고심?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권리당원 ARS 투표가 20일 오전 9시 시작되면서 송영길·김진표·이해찬 후보(이상 기호 순) 등 당권 주자들은 각계각층의 지지선언을 공개하고 대의원과 당원들을 분주하게 만나며 막판 지지세 끌어모으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8·25 전당대회는 대의원 투표 및 재외국민 대의원 이메일투표 45%, 권리당원 ARS 투표 40%, 국민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가 각각 반영된다.

민주당에 따르면 투표권이 있는 권리당원 71만명은 이날부터 사흘간 ARS 투표에 참여한다.

전화로 당대표 후보 1명과 최고위원 후보 2명을 선택하는 형식이다. 284만명에 달하는 일반당원은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기관 2곳이 각 1000명 샘플을 추출해 조사할 때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또 대의원 투표는 전당대회 당일인 25일 현장투표로 진행되고, 재외국민 대의원 이메일투표는 20일 오전 10시부터 22일 오후 10시까지 3일간 진행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과거 경험해본 적 없는 역대급 규모의 선거인단 투표인 만큼 모두 긴장한 채 원활한 전대 진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리당원 투표가 개시된 이날 후보들은 각자 자신에 대한 지지선언을 공개했다.

전날부터 호남 지역을 순회하고 있는 송영길 후보는 이날 서울시의회 의원 13명, 광주시의원 2명, 전북도의원 3명, 전남도의원 36명 등의 지지선언문을 공개했다.

이들은 지지선언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한다. 시대의 변화를 정확히 포착하고 기득권을 과감히 혁파해 새로운 피를 꾸준히 수혈할 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 측 관계자는 “서울과 호남의 당원 비율이 70%를 넘는다”며 “지방의원의 지지 선언은 판세를 뒤엎을 수 있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다름없다”고 자평했다.

김진표 후보 측은 이날 전국노동연대(상임대표 배강욱)와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부위원장 20명이 “김진표 후보가 ‘노동이 바로 경제다’며 노동존중을 핵심과제로 제시한 후보이기 때문에 깊이 신뢰한다”며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특보단으로 활동한 55명의 지지선언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최근 다수의 친문(친문재인) 성향 인터넷 카페가 지지 선언에 나섰다”며 “이들의 공개 지지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찬 후보도 이날 한국노총 소속 7개 산별연맹과 전국노동위원회 부위원장들의 지지선언을 소개했다. 이들은 지난 15일에 열린 노동계 대표자들이 참석한 전국노동위원회 주관 ‘당대표 후보 노동정책 토론회’를 통해 노동계 현안을 잘 이해하고 노동존중사회에 힘을 실어 줄 당대표로 이 후보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광주·전남 한반도평화포럼의 지지선언에 이어 노동계 지지까지 얻어 ‘대세’를 굳혀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최악” vs “연장” … 여야 드루킹 특검 공방

연장 여부 내일 결정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일명 드루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1차 수사 종료시한(25일)이 임박하면서 시한 연장을 둘러싼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역대 최악의 특검”이라며 시한 연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오만한 권력이 특검을 협박하고 있다”며 특검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익범 특검을 향해 “역대 최악의 특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허익범 특검은 정치 외압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오로지 드루킹 일당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했다”며 “야당의 무리한 공세와 특검의 무리한 영장청구로 시작된 (경남)도정 공백과 혈세 낭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특검이 밝혀낸 것이라곤 드루킹(김동원)의 거짓말뿐”이라며 “특검 연장을 요구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으므로,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야당도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과천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국민들은 대선 기간 드루킹과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 인사들이 공조해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며 “반드시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반드시 수사 기간 연장에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비대위원은 “법원의 영장기각이 김 지사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특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한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공당이 맞는지 의심스럽고 문 대통령은 추가 수사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익범 특검팀은 수사기한 연장 신청 여부를 오는 22일 결정할 예정이다. 허익범 특검 기간 연장과 관련해선 찬반 여론도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7일 전국의 성인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 특검 수사기한 연장 찬성은 전체의 45.5%, 연장 반대는 41.3%로 나타났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전공대 설립 당정 협조”

김해영 민주 최고위원 후보
광주시의회서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김해영(부산 연제구) 의원은 2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전공대 설립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2022년 3월 개교 목표인 한전공대 설립은 여당인 민주당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특별법 제정 등 필요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30%까지 확대하겠다”며 “청년 정치인으로서 지역의 청년 인재가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하락

리얼미터 56.3% … ‘안 前 지사 판결’ 등 영향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하며 50%대 중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3~14일과 16~17일 전국 성인남녀 2007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한 주 전보다 1.8%포인트(p) 내린 56.3%로 집계됐다.

이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준으로 최저치였던 지난주 주간집계(58.1%)보다도 낮은 수치다.

리얼미터는 “지지율 하락 보도 급증에 따른 편승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안희정 전 지사 무죄 판결’이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감을 높이고, 국민연금 개편과 국회 특수활동비 ‘꼼수 폐지’ 논란,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 등이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39.6%(1.0%p↓)로 3주 연속 하락했다. 자유한국당은 0.7%p 오른 19.9%로 2주째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정의당은 13.3%(0.9%p↓)로 2주 연속 소폭 내림세가 이어졌다. 바른미래당은 1.8%p 상승한 7.3%의 지지율로 3주째 만에 7%대를 회복했다. 민주평화당 지지율은 2.4%로 변화가 없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지경 기자 jkpark@

한국당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해야”

긴급 결의문 채택

자유한국당은 20일 “문재인 정권의 일련의 국정농단과 경제 파탄을 역사의 이름으로 심판하겠다”고 결의했다. 정부·여당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와 드루킹 특검 기간 연장 등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긴급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경제 파탄의 요인으로 꼽고 드루킹 특검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며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문에서 한국당은 문재인정부를 향해 “나라 망치고 서민경제 죽이는 망국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라”고 밝혔다. 또 한국당은 “댓글 조작을 한 드루킹에 대한 부실 수사를 규탄한다”고 결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해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라”고도 말했다.

한편, 한국당 의원들은 민심이 등을 돌린 원인으로 계파 갈등과 보수분열, 무책임, 리더십 부재, 막말 등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 소속 국회의원(112명 가운데 95명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당 혁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우리 당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계파 갈등과 보수분열이라고 답한 사람이 53명으로 가장 많았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평화당 사무총장에 황주홍 의원

민주평화당은 2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재선의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을 사무총장에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무소속 의원들을 모셔올 때 활용하기 위해 사무총장직 임명을 미뤘던 측면이 있지만 길게 비울 수 없어 우선적으로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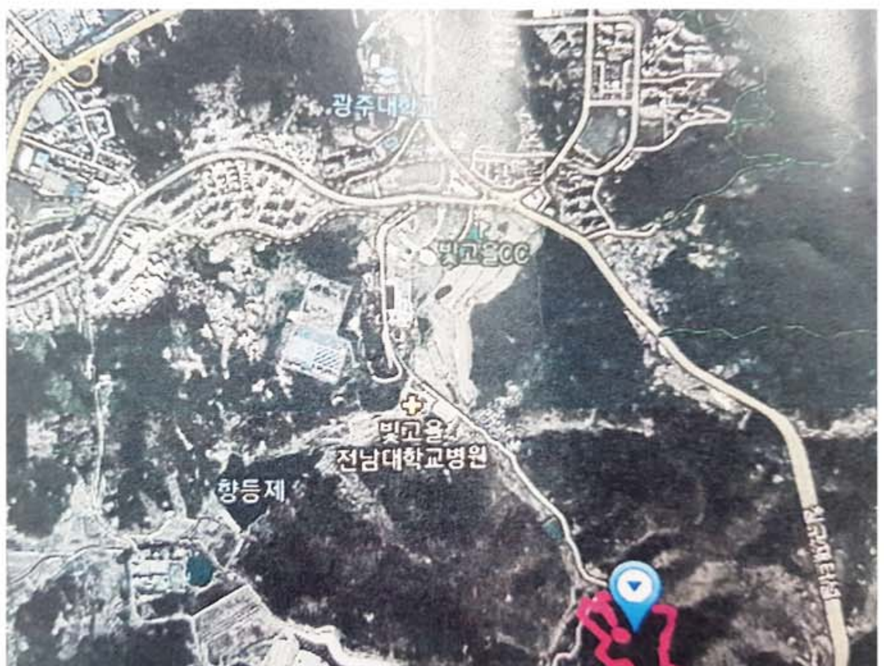
황 의원은 강진군수를 지냈으며 20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평화당은 또 김정현 당 공보실장과 홍성문 마포갑 지역위원장을 각각 대변인으로 선임했다. 공보실장에는 최동환 도봉구갑 지역위원장이 임명됐다.

정동영 당대표 체제의 평화당은 앞서 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지만 평화당과 뜻을 같이하는 박주현 의원을 당 대변인에 선임한 바 있다. 아울러 평화당은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의원 강원도 고성연수원에서 의원 워크숍을 진행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5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문의. 010-6834-7400